

# “안전방충망 덕택에 여름에도 덥지 않아요”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 송은지 핀스튜디오



시설 이용자와 직원들이 안전방충망이 설치된 창문 앞에 모였다. 왼쪽부터 이현정(32), 박묘숙 관장, 박재연(28), 한명옥 수녀, 김난희(22) 씨. 오른쪽 사진은 번호 키로 여닫는 안전방충망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에는 성분도단기보호시설이라는 곳이 있다. 성분도복지관(관장 박묘숙)의 부설기관으로 20~30대 중증 지적·자폐성 여성장애인 15명이 생활한다. 시설이 아늑하고, 자립훈련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어서 입소 대기인원이 항상 많은 편이다.

3층 건물의 1~2층은 복지관에서 사용하고, 3층에 방(11개)과 화장실·욕실·베란다 등을 마련해 시설 이용자들이 지낸다. 3층 창문에는 원래 일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방충망이 설치돼 있었다. 그런데 위험 인지도가 낮은 이용자들이 방충망을 연 뒤 창가에 몸을 내놓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일이 잦아 직원들이 놀랄 때가 많았다. 추락사고가 일어난 적은 없지만, 창문을 열어놓는 시기에는 직원들이 늘 마음을 졸여야 했다. 뒤쪽의 베란다 창문이 2층 옥상과 연결되어 있어 외부인의 침입이 가능한 점도 고민거리였다.

방범창 기능을 겸하는 ‘안전방충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원들은 안전방충망을 아산재단의 ‘2014년 사회복지 공모사업’에 신청했다. 서류심사와 현장 실태조사,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지원단체로 선정된 시설에는 마침내 31개의 안전방충망(700만원 상당)이 설치되었다.

“아산재단 덕분에 작년 7월 10일 창문마다 방충망이 마련되었어요. 예느 방충망과 달리 번호 키로 여닫고, 강한 충격에도 견디는 철망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지난여름에 맘 편히 창문을 열어놓고 시원하게 보냈어요. 요즘처럼 더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번호를 입력해야 방충망을 열 수 있어서 안전하고, 밖에서 들어올 수도 없답니다.”

시설을 총괄하는 한명옥 수녀는 아산재단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방충망 설치 뒤 이현정(32) 이용자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에게 쓴 카드를 보여주었다.

‘정몽준 이사장님께. 방마다 방충망 설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기에 물리지 않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멋진 이사장님 보고 싶습니다. 우리 단기보호시설에 꼭 놀러 오세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단체들이 있습니다. 아산재단은 1977년부터 4,100여 복지단체에 376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산재단은 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계층의 자녀,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미혼모, 폭력피해여성,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